

尹武炳氏이며 製圖는 林泉, 金正基, 兩氏라 한다. 內容은 本文 九七頁, 英文概要 一四頁, 插圖 五四枚, 圖面 二五面, 寫眞圖版 六〇面이며 크로스裝의 菊倍版이다.

◎ 新羅石佛頭의 發見

慶州市 南山里 憲康王陵에서 一五〇m 西南溪谷으로부터 最近에 發見되였다고 한다. 形式은 頭頂에 큼직한 肉髻가 있고 螺髮이며 白毫가 있고 兩耳는 없는 데 口唇는 微笑를 띠었다. 鼻部가 多少 損傷되였으나 雄麗한 作品으로서 樣式과 彫法에서 九世紀初葉의 造型으로 推定되였다고 한다. (以上 崔南柱氏 報文에 의한)

實測值: 高 一m 六五cm 幅 六五cm 厚 七〇cm

— 第二卷 第七號 通卷十二號 —

新羅陶硯 三例

朴 日 薰

벼루의 起源은 筆墨을 使用하게 되므로부터 있었을 것이며 그 遺品으로는 殷代의 石板이 出土된 바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漢代의 類品이 樂浪遺跡에서 調査된 바 있었고 三國時代의 數例도 扶餘와 慶州에서 發見된 바 있었다. 그런데 一九六〇年 春 慶州에서 水路工事が 進行됨에 따라 仁容寺址(慶州市 仁旺里의 半月城 正南 蛟川 越便)로 推定되는 地點에서 大小 三個가 出土되어 一括 收拾되였음으로 百濟의 遺品(本紙 二의 四一九六一年 四月 洪思俊氏 「百濟의 陶製硯과 石製硯」 과도 比較하여 간단히 紹介하겠다.

(A) 綠釉獸脚圓硯

圓形臺輪上에 多數의 支脚으로 硯身을 받들고 外面에는 靑綠釉를 덮은 大形品인 바 約 三分의 一이 缺落되였다. 中央의 研面은 圓形으로 外廓보다 낮으막하고 그 周緣과 外廓間은 硯池로 되어 있다. 外周에는 上下 二條의 帶線이 둘러 있고 그 사이에는 矩形內에 蝶形(또는 獸面인 가) 紋이 素面과 交代되면서 線刻되였다. 下周底面에는 獸面獸足の 支脚(現

在七)이 一定한 間隔으로 약간 傾斜되면서 臺輪 上에 固定되였다. 內側의 土質은 堅緻하고 灰黑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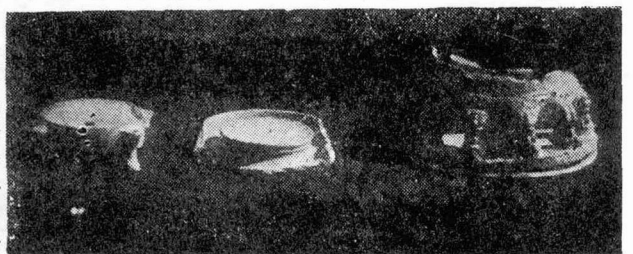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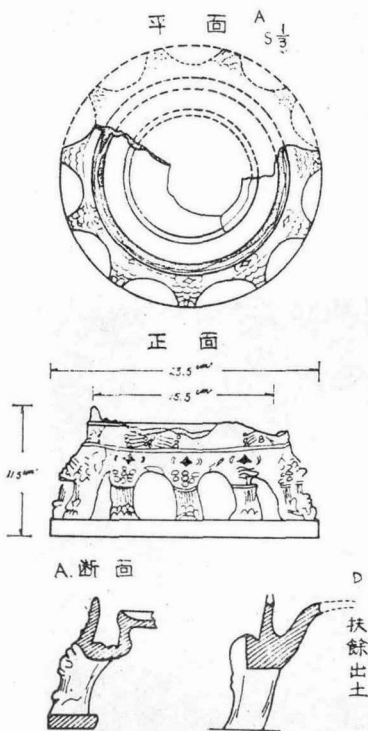
(B) 陶製丹硯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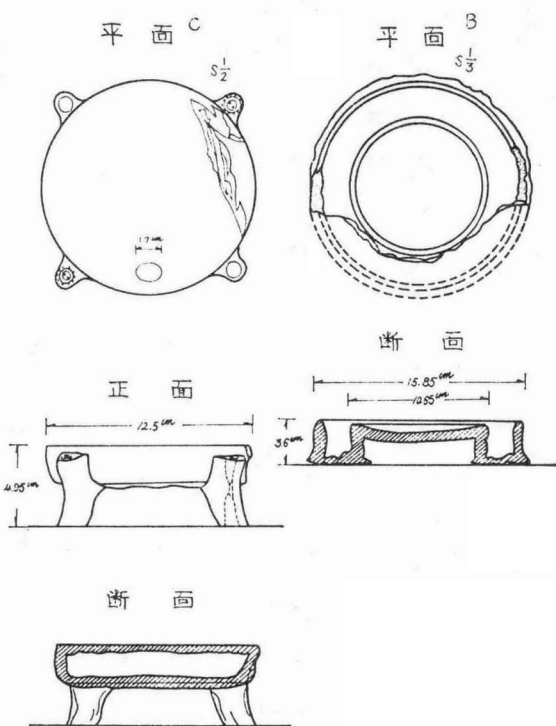
形式은 거의 (A)와 同一한 바 그 보다 작고 支脚이 없다. 土質은 灰黑色인 바 精密하지는 못하며 實用 研磨된 痕跡이 보인다. 下底에는 周緣을 둘 아서 雙線이 陰刻되어 있다.

(C) 陶製圓硯②

(A)(B)와는 形式이 다른데 平薄한 圓筒으로 身部를 삼았으며 四脚으로서 支撐하였다. 上面은 全體가 研面을 이루고 一方에 小圓孔이 있어 內空의 圓筒으로 通하였는데 硯水를 貯藏하기 위한 듯한 것이 特異하다. 支脚은 筒體의 外周를 四等分하여 附着시켰는데 그 上面은 圓形平坦하여 圓錐形小孔이 있는 것과 圓點紋이 있는 것이 各一相對하고 있다. 土質은 堅緻하고 灰黑色인 바 上面은 磨研되어 潤澤하다.

以上 三例中 A와 B는 扶餘出土品과 같이 研面을 中心에 두고 硯池가 周回하고 있는 것이 類似하나 研面의 構造가 다른 것이 注目되였다.





即扶餘 것은 圖面D와 같이 研面이 硯池를 向하여 傾斜되어 礫물이 流下하기 쉽게 되었고 慶州의 A, B二例는 輪廓이 두드러지게 만들어져서 礫물이 保存되도록 되었다.

註 ① 이와 同形의 破品이 慶州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② 이와 同形의 破片一個가 一九五九年頃 慶州 雁鴨池附近에서 出土되어 慶州博物館에 收藏되었다.

榮州 浮石寺 東方寺址의 調査

林 泉

一九五八年 十一月 浮石寺 東方인 榮州郡 浮石面 北枝里 所在寺址의 雙塔 復原과 石佛二軀(國寶三四八號)를 浮石寺 慈仁堂으로 移置하는 作業 中原位置에서 新羅下代로 보이는 法堂址의 一部가 調査되었다. (地形 圖 參照)

塔은 埋沒된 基壇部를 과내어 約 一·五m 높이를 돌우어 改築하였고 그 東北方에 자리잡고 있는 如來座像 二軀를 옮기기 위하여 이 곳또한 八角臺座를 發掘하였는데 臺座 周圍에서 石佛과 同時에 造營되었으리라 믿어지는 建物の 礎石이 發見되었다. 一邊이 一·九尺되는 方石 위에 圓座가 있는 이 礎石은 左右의 長臺石과 連結되어 있었다. (礎기 洞 礎石은 7字形) 그리하여 全貌를 把握할 수는 없었으나 大略 正面三間 側面二間의 平面을 가진 法堂으로 推定되었다.

(寺址平面圖) 이 곳 寺址에는 地勢에 따라 築造된 石築이 있어 寺域을 짐작케 하여 중심이 있으나 地表에 보이는 것 以外는 더 調査를 進行하지 못하였다.

八角臺座는 一邊 五·三五尺의 方形地臺石 위에 놓였는데 八角下臺石 各面에는 眼象內에 獅子를 高肉彫하였고 그 위에 伏蓮을 彫刻하였으며 竿石 各面에는 座佛을, 上臺石에는 仰蓮을 새겼다. 東端佛座는 地下에서 새로히 조사되었는데 下臺蓮花石만이 埋沒되어 있었고 頭缺의 破壞된 佛體만이 남아 있었다. (註)

石塔雙基中 西塔은 完全崩壞되어 있었고 東塔은 第一層蓋까지 남아 있었던 것을 各部塔材를 찾아서 復原하였는 바 모두 二層基壇上의 三層塔으로 新羅下代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

그 外에 寺址에서 石燈蓋石 一個와 石佛手破片과 蓮花文 土甎새 土陶器

